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중국 상하이에 모인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이 3·1운동을 계승하여 국가의 대표 기구로 수립한 정부이다. 국권 상실 시기임에도 국가 체제를 갖추고 중앙정부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 내정·군사·외교·교육·문화 등 조직적 항일독립운동을 지휘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정' 정치체제를 확립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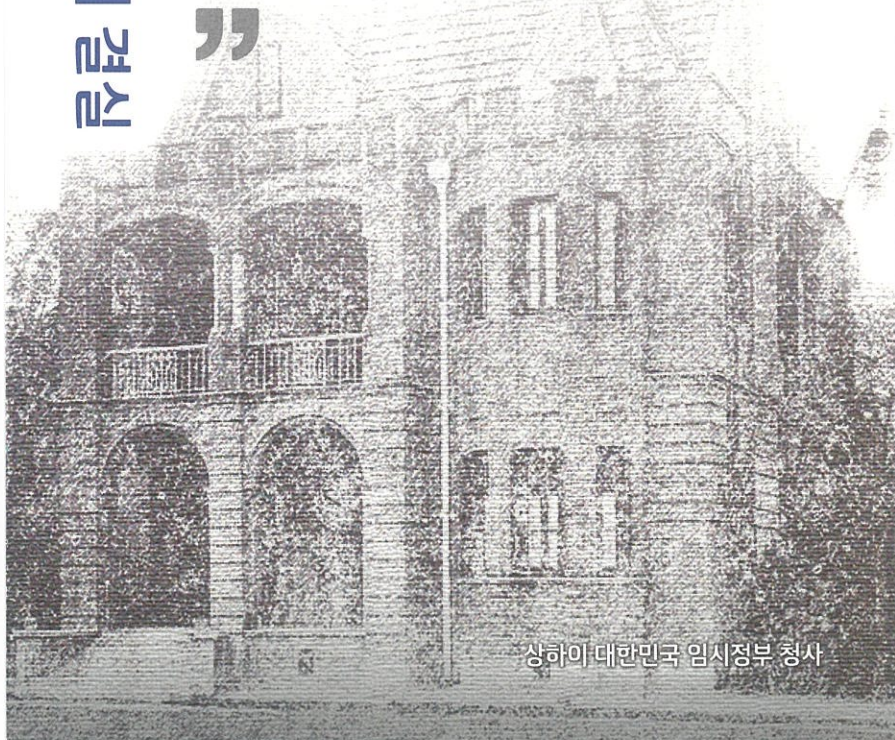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와 귀천, 빈부와 계급 없이 일체 평등하다...”

1919년 4월 11일 제정 「대한민국 임시헌장」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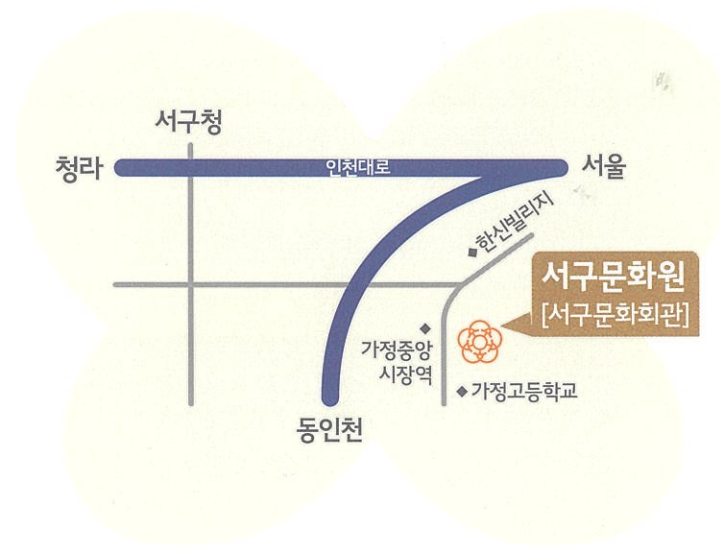
「대한민국 헌법 전문」

”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 문화로 사람이 아름다운 서구를 만듭니다.



찾아오시는 길 |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90 서구문화회관 2층

지하철 |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 하차 ▶ 1번출구 ▶ 도보 10분

버 스 |

시내버스 14번, 721번, 마을버스 592번 서구문화회관 정류장 하차

자가용 |

인천대로 옛 서인천C ▶ 청천동 석남동 방향 ▶ 석남동 방향 우회전 후 직진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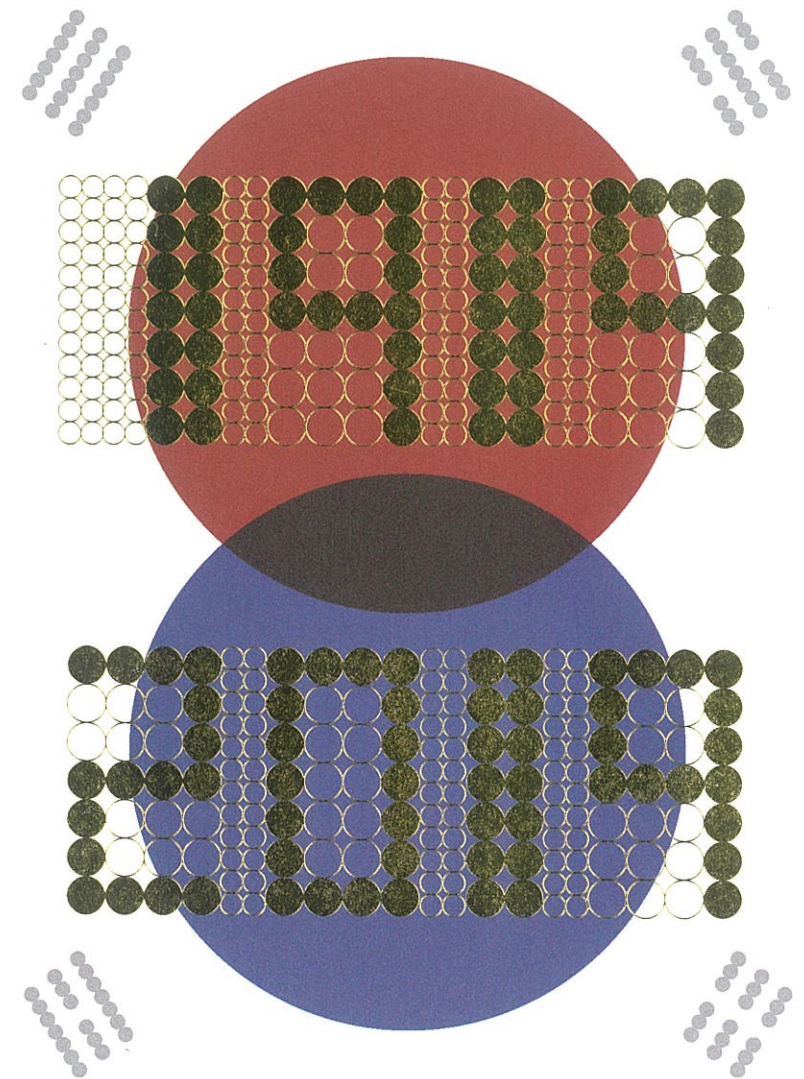
A |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90 서구문화회관 2층

T | 032)560-2931, 032)582-4341

F | 032)582-4342

H | www.seogucul.or.kr

## 한/눈/에/서/구 [2]



3·1운동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919년 3월 1일, 100년 전 그날의 함성

## 3·1운동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이어진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한민족 최대의 항일독립운동이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규모 민족독립운동이다.

근대민족주의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며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수립과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제1차 사타그라하운동 등 아시아·중동 지역의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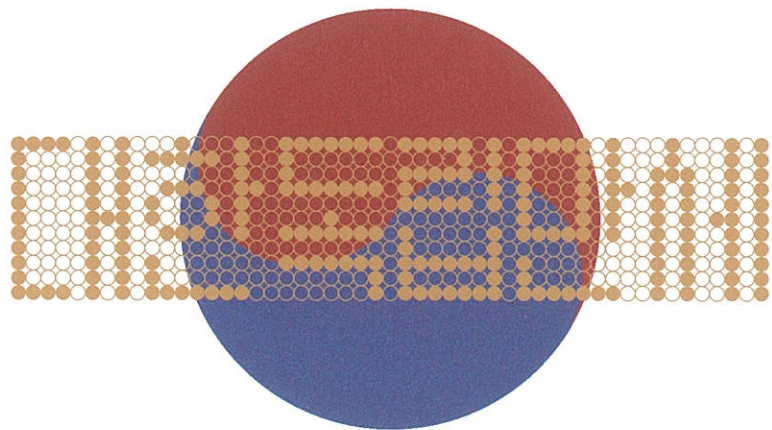
1919.03.01

“

“오등은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유케 하노라...”

「3·1독립선언서」

”



## 인천 서구의 항일독립운동가

유 완 무 柳完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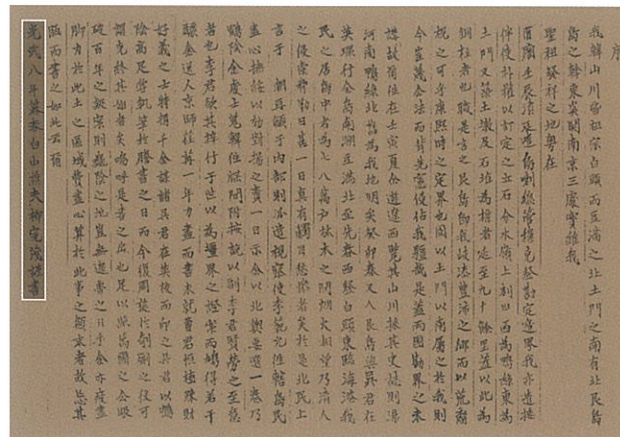
1861~1909

서구 시천동

(당시 부평부 모월곶면 시천리 시시내마을)

인천감리서에 수감된 김구의 탈출을 도모하고  
만주·러시아에서 독립운동과 국권회복 위한  
교육사업을 전개하다

인천감리서에 수감된 김구를 구출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간도의 지리서 『북여요선』 간행을 주도하고 서문을 작성하였다.  
만주·러시아 일대에서 독립운동근거지를 개척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해외 최초 한글신문 『해조신문』 발행을 위해 장지연을 영입하는 한편 교육사업을 전개했다.  
2009년 만주·러시아에서의 독립운동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북여요선」 서문\_필사본(1903)

“

“우리 한국의 산천은 모두 백두산을 조종祖宗으로 삼았고 ... 북간도의 간동幹東, 해관奚關, 남경南京 세 곳은 진실로 우리 성조聖祖의 발상지였다... 간도는 곧 우리에게 기점岐添과 풍패豐沛의 지방인데, 멀리 떨어진 변방으로 봐서 되겠는가. 강희년간에 경계를 정할 때 진실로 토문(강) 이남은 우리의 국토에 속하게 했은즉, 이제 어찌 공법을 업신여기고 우리의 강토를 침범하고 엿보는가!”

”



심 영 택 沈永澤

1869~1949

서구 당하동

(당시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광명마을)

주비단籌備團을 결성하여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다

1920년 이규승·장응규·여준현 등과 경신학교에서 주비단을 조직하고 초대 사령장을 맡았다. 주비단은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위해 만들어진 비밀결사단체로, 독립군자금을 모집해 임시정부에 지원하고 독립을 위한 선전 활동을 했다.  
1995년 항일독립운동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국민주권  
민족독립운동



심 혁 성 沈熾誠

1888~1958

서구 오류동

(당시 부천군 계양면 오류리)

황어장에서 300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태극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외치다

전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황어장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했다.  
1919년 3월 24일 오후 2시경 황어장에서 300여 명의 군중을 규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이끌었다. 이후 3월 28일에는 오류동에서 주민들이 만세운동을 벌이는 등 인근 지역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90년 3·1운동에 헌신한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